

행복한 우리가족의 대화

백상창(건강가정 아카데미, www.healthymind21.com)

역 사학자 토인비와 만났던 분의 말에 따르면
역 “나는 당신네(한국) 나라의 가정이 부럽소.
언제나 서로 만나 오손도손 얘기하고 정(情)을 나누
는데……나는 삼십리 밖에 사는 아들놈도 크리스마
스날에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서양의 가족제도
를 개탄하더라는 것이다. 그간 한국도 ‘근대화’,
‘민주화’의 물결 때문에 가족간의 정이 메말라 가
고 이혼율이 급상승한다고는 하나, 대체적으로 보
면 아직도 한국인 부모의 자식사랑은 유별나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가족을 먹여살리려는 아
버지가 있고, 참을 수 없는 고생도 내색하지 않고
견뎌내는 어머니가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속
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밥을 먹고, 거리낌 없이 얘기
해도 흥이 되지 않으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모두
힘을 합쳐 풀어나갔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며,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밖에
서 처절한 실패를 해도 언제나 가정에 돌아가면 위
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1960년 이래 지난 40년 가까운 급격한 “사회변
동”은 한국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 고도의 “경쟁사
회” 때문에 아버지의 귀가가 늦어졌고, 밤낮 가릴것
없이 상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TV광고 때문에 주부
들의 소비욕구가 뿔뿔이 되어, 남편의 별이는 턱없
이 부족하게 되었다. 생활비에 보태겠다며 한 계모
임, 주식투자, 싼땅 산 것들은 잘못되기 마련이고,

마침내 눈덩이처럼 빚을 지고 가출하거나 자살하거
도 한다. 가족구성원 특히 부부끼리의 대화가 얼마
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나 때가
늦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오랜 세월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미칠지
경의 사람들”을 치료해 왔고 가정법원의 조정위원
으로서, 서로를 저주하며 악을 쓰면서 헤어지려는
이들을 위해 “화해 조정”을 해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불행과 고독감과 가정의 붕괴는 결
국 평소에 적절한 대화가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
다. 이렇게 보면 “대화”는 천금보다 낮고 높은 감투
나 출세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간의 건강한 대화의 길은 무엇인가?

첫째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려는 마음에서 출발된다. 이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존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
라 보며, 심지어는 산새나 벌레 마저도 태어날 가치
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물며 전생애
인연이 있어 만나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부부간이나
이들이 낳게 된 자녀들간에 존중과 사랑이 어찌 없
겠는가?

전전가정을 위한 두번째 처방은 될 수 있는 한 서
로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일이다. “뒷집 아무
게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다”느니 “아무게 부인

인간의 불행과 고독감과 가정의 붕괴는 결국 평소에
적절한 대화가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화”는 천금보다 낮고
높은 감투나 출세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 인물도 좋고 애교도 있더라”느니 하거나, “당신
오빠는 인간도 아니다”느니, “당신 어머니는 천하에
약독한 시어머니였다.”는 등의 얘기는 상대방의 가
슴에 못을 박는 얘기가 된다.

건강한 가정대화를 위한 세번째 길은 어려울때

일수록 진실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의 실
마리를 찾으며,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것
이라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후기 산업사
회를 지나 빛의 속도로 정보가 흐르는 인터
넷시대에 살기 때문에 가족간에는 시시때
때로 서로의 처한 입장, 고민, 바람(願望),
계획 등에 대해서 기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번째 길은 될 수 있는 한 “안된다”, “실망
했다”, “내눈 앞에서 사라져라” 하는 부정적
대화를 삼가하는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고맙소”, “훌륭한 일ियो”, “그래도 너
는 성공할 아이다” 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일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보아도 사
람의 말에는 이상한 마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치료는 의사
의 말(치료적 언어)로서 행해지는게
아닌가.

건강가정의 대화를 위한 다
섯번째 처방은 가족 구성원은
항상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높은
삶을 향해 가는데서 온다는 점이다. 아무리 부부간
이라 해도 항상 같은 언어만 쓰는 대화시는 실증이
날 수 있다. 서로의 관계를 재음미 하고, 믿음과 사
랑을 심화하며, 새로운 말을 창출하고, 새로운 표현
을 할 때 관계는 더욱 묘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PPPK